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김영미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 18:00~18:30

신안해저선에서 인양된 물건의 대부분은 교역품이다. 도자기, 금속기, 자단목紫檀木, 동전, 칠기, 유리제품, 석제품 등 다채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신안해저선에 선적되었던 교역품은 14세기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고, 현재는 우리에게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신안해저문화재 중에서 양적, 질적으로 단연 돋보이는 상품은 도자기이다. 총 2만여 점 가운데 중국 저장성[浙江省] 용천요龍泉窯 생산품이 60%를 넘어, 당시 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준다. 그밖에 장시성[江西省] 경덕진요景德鎮窯에서 생산된 청백자, 길주요吉州窯에서 생산된 백지흑화白地黑花 자기, 푸젠성[福建省] 건요建窯에서 생산된 흑유黑釉 자기도 주목된다. 고려청자 7점도 함께 발견되었다.

도자기 다음으로 주목되는 물품은 총 무게가 28톤에 달하는 약 800만 개의 동전이다. 중국 신나라(8-23) 때 발행된 화천貨泉(14)부터 1310년 원원(1271-1368)이 발행한 지대통보至大通寶까지 모두 66건 299종의 화폐가 확인된다. 송宋(960-1279)의 동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부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은 천여 점의 자단목이다. 태우면 향기가 나고 목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향목香木, 고급가구, 불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다. 나무 표면에 한자,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등이 써 있거나 새겨져 있어, 인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역 범위를 짐작케 한다. 천여 점이 발견된 금속기는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다채로운 제기, 식기, 불교 공양구, 장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료는 청동, 황동, 동, 주석합금 등이 확인된다. 함께 발견된 300여 건의 금속정은 불상이나 금속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들인 것이다. 이밖에 계피, 정향丁香, 후추, 파두, 산수유, 빈랑 등의 향신료와 약재도 발견되었다.



그림 1. 청자 국화·구름·봉황무늬 접시



그림 2. 사자 모양 향로



그림 3. 정향을 담은 흑유단지

## 금속공예 제작 기법

채해정 | 302호 금속공예실 | 18:00~18:30

금속공예의 재료가 되는 것은 금, 은, 동, 철 등이며, 특히 동과 주석을 합금한 청동이 많이 이용된다.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든다. 금속공예 제작 기법은 크게 형태를 만드는 성형(成形) 기법과 표면을 장식하는 표면 장식 기법으로 나뉘어진다. 성형 기법은 금속을 두드려서 작품을 만드는 단조 기법과 녹인 금속을 틀[거푸집]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주조 기법이 있다.

표면 장식 기법은 금속공예품의 표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彫金) 기법은 여러 종류의 끌을 이용하여 문양을 조각하는 것이다. 표면에 선을 새겨 넣는 선조 기법과 판을 뚫어서 문양을 만드는 투조 기법이 있다. 흔히 양각이라고도 하는 부조는 문양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인데, 타출 기법(그림 1)과 압출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금 기법은 금색이 나도록 금속 표면에 금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도금 기법은 수은 아말감(amalgam)을 이용하는 것이다. 입사 기법(그림 2)은 금속선이나 금속판을 또 다른 금속 바탕에 끼워 넣는 것이다. 이 기법은 금속뿐만 아니라 나무, 도자기 등에도 응용되어 이것을 상감 기법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에 발달했던 누금세공 기법은 작은 금 알갱이나 금선을 바탕이 되는 금에 붙이는 것인데 알갱이는 세립 세공, 금선은 세선 세공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림1. 표주박 모양 병, 고려, 신수15081



그림2. 은입사 병, 고려, 본관1990

##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세종

이수경 | 118호 조선2실 | 19:00~19:30

세종世宗(재위 1418-1450)은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그의 업적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民本 사상과 우리 풍토에 맞는 문물을 만들겠다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의 가장 독보적인 업적은 1443년(세종25)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이다.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르고 우리에게 맞고 일반 백성이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은 한글을 만든 것이다. 한글은 획기적인 발명품이며 세계 문자 중 만든 사람과 반포 시기,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자이다.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에 획을 더하거나 글자를 포개어 다른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현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 천문학, 역학, 의학, 무기 제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측우기·물시계·해시계를 고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역법서를 만들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수합했다. 도량형을 통일하는 일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데, 세종 때 새 저울을 만들어 보급하고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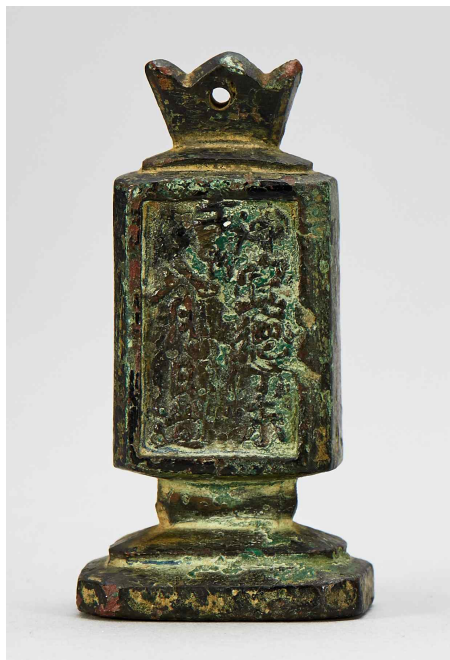


그림 1. 청동추. 조선 1427년.

명문(앞):공조 선덕연간 정미년(1427) 8월  
(工曹 宣德 丁未八月日造)  
(뒤):전 1근(약641g), 중 3근, 후 7근  
(前一斤 中三斤 後七斤)

또한 백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1430년 5개월 동안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 2,80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찬성이 57%로 나왔으나 반대도 많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세법을 가다듬어 1444년에 토지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구분하는 전분6등제와 연분9등제를 시행했다.

이러한 업적은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신권臣權과 왕권王權의 조화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인사와 군사 분야에서는 이조와 병조의 직계直啓를 용인하고 나머지는 신하들에게 맡기는 의정부 서사제署事制를 실시하여 신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 진정으로 힘이 있는 왕이었다.



## 도자기의 표면색-(1)청자편

이해순 | 303호 청자실 | 19:00~19:30

도자기의 표면색은 태토와 유약 속에 포함된 발색산화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고온소성 중에 유약과 점토의 화학적 반응으로 생기는 유리상 결정과 유약내의 기포 및 병렬의해 다양한 색조를 띤다.

태토와 유약은 모두 크게 보아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흙 재료는 기器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토질 재료(고령토)와 그 형태가 고온에서 구워지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규산질 재료(규석), 점토질과 규산질 재료가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스스로 녹는 용제融劑(장석)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흙 재료가 가진 본래의 성질을 고려하면서 혼합하면 태토를 만들 수 있고, 흙 재료의 구성 성분인 산화물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혼합하면 유약을 만들 수 있다. 흙 재료들만 혼합한 상태의 유약은 무색투명한데 이를 기본유라고 한다. 기본유에 철, 구리, 코발트 등의 발색원소를 첨가함으로써 청자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색을 구현한다. 과거에는 발색원소를 다량 함유한 자연광석을 분쇄하여 발색제로 사용하였으므로 불순물이 함유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에는 한 가지 금속산화물로 가공된 분말을 사용한다.

청자靑瓷의 사전적 의미는 “철분이 미량 들어있는 태토와 석회질의 유약을 입혀 1250~1300℃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환원소성한 자기의 일종” 이라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자색을 발현하는 화학적 변화의 주요인은 산화철이지만 미량 함유된 기타 금속산화물에 의해서 푸른색조가 다양하게 변한다. 또한, 소성 중에 환원을 거는 시점과 CO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청자의 색변화가 일어난다. 청자의 소성방식은 평균적으로 상온에서부터 950℃까지는 산화소성으로 진행하다가 950~1000℃ 이후부터 환원소성으로 진행하여 1230~1250℃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서서히 냉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 외에도 시유두께를 조절하여 유색의 투명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림 1. 중국 현대청자, 고려청자, 일본 현대청자의 현미경사진(×160)